

요약문	i
I. 평가방법	
1. 개요	1
2. 초점집단면담 대상자	1
3. 초점집단면담 방법	1
4. 초점집단면담 내용	2
5. 분석방법	3
II. 평가결과	
1. 참여대상자 특성	4
2. 영역별 초점집단면담 결과	4
2-1. 질환 경험 및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도	4
2-2. 치료결정	14
2-3. 치료 과정	21
2-4. 치료 후	22
2-5. 기타	27
III. 결과요약 및 결론	
1. 평가결과 요약	29
2. 결론	33

요약문 (국문)

평가방법

본 초점집단면담은 질환 및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경험을 조사하여 의료기술 재평가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환자 대상의 면접(정성)조사로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의료기술별 환자를 대상으로 초점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평가결과

1. 질환 경험 및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도

환자들의 알레르기비염·천식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거나 성인이 된 후 항원에 노출되면서 발현했다. 환자들은 약국 콧물약이 효과가 없을 때 내과나 알레르기 내과를 찾았고, 피검사 또는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고양이 털,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파악했다. 환자들은 재채기, 코막힘, 천식 등 호흡기 증상과 눈 부위의 가려움 및 부음, 결막염, 입천장 가려움의 증상을 경험했다. 환절기, 에어컨 켤 때, 종이 넘길 때, 고양이가 근처에 있을 때, 건조할 때, 오전 시간대, 밤 시간대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환자들이 있었다. 환자들은 알레르기비염·천식 때문에 사회생활의 불편함,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삶의 질 저하 및 심리적 위축, 기타 불편함을 겪었다. 독서실, 학교, 직장에서는 재채기가 문제 되었으며, 팬데믹 시기에는 콧물을 닦거나 마스크를 교체할 때 타인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타인의 향수 냄새나 섬유유연제 향을 맡으면 증상이 나타났다.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때문에 졸림, 변비, 입이 마르고, 마른 기침을 했다. 코 대신 입으로 숨쉬어 수면의 질도 낮았다. 환자들은 알레르기비염·천식의 개선을 위해 의학적 방법과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만 있었다. 환자들은 수면 장애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무기력증, 우울증, 짜증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양이와 살기 위해, 자녀 계획 중 자녀 면역력 유전 개선, 가족이나 타인의 불편함, 폐 균염 우려, 일상생활 불편함 개선을 위해 알레르기비염·천식의 치료를 결정하였다.

2. 치료결정

환자들이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3~5년이면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다음으로 높은 치료율, 의사의 추천, 사용 중인 치료법의 부작용 때문이었다.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 병원이 적고, 치료비가 비싸다는 점은 치료법 선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치료법을 인지하거나 추천한 주체는 의사, 지인, 본인의 인터넷 검색이었다. 부작용, 주기적 치료의 번거로움, 주사 거부감 때문에 치료법 선택시 고민한 환자도 있었지만, 7명 중 5명(1~4점)은 부작용보다는 증상의 치료가 더 중요하여 고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의사로부터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6명은 7~9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치료법을 결정할 때는 원인, 비용, 치료 빈도, 치료 기간, 치료 효과와 성공률, 부작용, 주사 통증 정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3. 치료과정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의 가장 큰 불편함은 치료 기간이 길다는 점과 빠짐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초기치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났다. 그 외 치료 과정 중 느끼는 불편함으로는 알레르기 항원 검사 시 따끔하고, 주사 후 가려움이 있었다.

4. 치료 후

약 수급 문제로 치료가 종료되어 재발 시 초기치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환자가 있었고, 증상 개선이 있지만, 콧물 증상이 조금씩 나빠짐을 느끼는 환자도 있었다. 효과 없이 증상이 더 나빠져 치료를 포기한 환자도 있었다.

치료 효과 측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콧물, 재채기, 눈 주위 가려움 등의 증상 완화였으며, 그 외 피검사 수치의 개선과 먹는 약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이었다. 알레르기비염·천식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1~10점으로 환자마다 달랐다. 효과에 대해 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증상의 개선과 항원 노출시 증상 개선 때문이었고,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효과가 없다고 느끼거나 피검사 수치가 기대보다 덜 낮아지거나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어 치료법의 효과인지가 명확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 외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향상 되었고,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지 않아 부작용이 사라지고, 코로 숨 쉬면서 두통이 사라져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느꼈다.

알레르기비염·천식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에 대한 추천도는 6~10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효과를 느낀 경우 알레르기의 원인을 치료해 주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추천점수가 높았다. 환자 본인은 효과가 낮다고 느끼더라도 알레르기에 대한 유일한 치료 방법이며, 치료된 환자도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만한 치료법으로 추천하였다.

5. 기타

환자들은 알레르겐 면역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적고, 병원 방문의 불편함 개선을 위해 자가 주사의 필요성, 주사제 수급의 어려움, 긴 치료 기간의 단축, 증상 개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론 및 제언

환자들은 약국에서 파는 콧물약이 효과가 없을 때 내과나 알레르기 내과를 찾았다. 환자들은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천식, 눈 부위의 가려움 및 부음 증상을 겪었다. 증상은 환절기, 에어컨 켤 때, 종이 넘길 때, 고양이가 근처에 있을 때, 건조할 때, 오전 시간대, 밤 시간대에 심해졌다.

알레르기비염·천식 환자들은 사회생활의 불편함,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삶의 질 저하 및 심리적 위축, 기타 유형의 불편함을 겪었다. 예를 들어 정숙함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재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았으며, 향기에 예민해져 사람을 만날 때 불편함을 느꼈으며,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때문에 공부할 때 졸리고 재채기 때문에 집중도 어려웠다. 알레르기비염·천식의 개선을 위해 의료적 치료와 향원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집 청소 및 사용 제품을 교체했으나 일시적인 효과만 있거나 효과가 없었다.

환자들은 수면 장애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무기력증, 우울증, 짜증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양이와 살기 위해, 자녀 계획 중 자녀 면역력 유전 개선, 가족이나 타인의 불편함, 폐 균염 우려, 일상생활 불편함 개선을 위해 알레르기비염·천식의 치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은 3~5년이면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높은 치료율, 의사의 추천, 사용 중인 치료법의 부작용 때문에 선택했다. 다만, 환자들은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 병원이 적고, 치료비가 비싸다고 느꼈다.

치료법 결정의 어려움 정도는 1~7점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주기적 치료의 번거로움, 주사 거부감 때문에 고민한 환자도 있었지만, 다수는 부작용보다는 증상의 치료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다수가 7~9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충분한 정보 제공은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치료법을 결정할 때는 원인, 비용, 치료 빈도, 치료 기간, 치료 효과와 성공률, 부작용, 주사 통증 정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 과정 중 가장 큰 불편함은 치료 기간이 길다는 점과 빠짐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주사 후 가려움도 있었다. 약 수급 문제로 치료가 중단되어 재발시 초기치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환자가 있었으며, 콧물 증세가 조금씩 나빠짐을 느끼는 환자가 있었다. 효과 없이 증상이 더 나빠져 치료를 포기한 환자도 있었다.

환자들이 말한 효과 측정 지표와 삶의 질 개선 사항은 객관적 지표로 개량화하여 증상 개선의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었다. 환자들은 치료 효과 측정 지표로 콧물, 재채기, 눈 주위 가려움 등의 증상 완화, 피검사 수치의 개선, 먹는 약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을 언급하였다. 치료 효과로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향상 되었고,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이 사라지고, 코로 숨 쉬면서 두통이 사라져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느꼈다. 환자들이 체감한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1~10점으로 환자마다 달랐다. 증상의 개선과 향원 노출시 증상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환자가 있는 반면 효과가 없다고 느끼거나 피검사 수치가 기대보다 덜 낮아지거나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어 어떤 요인의 효과인지가 명확치 않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었다.

알레르기비염·천식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에 대한 추천 이유는 알레르기의 원인을 치료해 주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였다. 환자 본인에게는 효과가 낮다고 느끼더라도 알레르기에 대한 유일한 치료 방법이며, 치료된 환자도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만한 치료법으로 추천하였다.

환자들이 언급한 알레르겐 면역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적고, 자가 주사의 필요성, 주사제 수급의 어려움, 긴 치료 기간의 단축, 증상 개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고민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였다.

1. 개요

본 초점집단면담은 질환 및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경험을 조사하여 의료기술 재평가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술에 대한 환자 대상의 면접(정성)조사 형태로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의료기술별 환자를 대상으로 초점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초점집단면담 대상자

대상 질환은 알레르기비염·천식으로 알레르겐 면역요법을 평가 대상기술로 하였다. 대상자 요건은 ‘최근 3년 이내 알레르기비염·천식 진단을 받고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치료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성인’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2023년 7월 24일(월)~10월 6일(금)까지 진행하였다. 대상자 모집을 위해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내 환자가치조사 참여대상자 모집을 공지하고, 대상 질환 관련 모임, 맘카페, 여성 관련 건강정보 카페 등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51곳)와 전문 좌담회 정보 공유 사이트(3곳)에 평가정보를 게시하여 자발적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후기 작성자를 대상으로 1:1채팅, 쪽지, 댓글 등을 통한 개별 섭외(23건) 방식을 병행하였다.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세부내역 기록 제출을 통한 참가 적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평가 목적, 방법, 면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필요시 철회 가능 등의 내용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직접대면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초점집단면담 방법

본 초점집단면담은 전문 모더레이터가 진행하는 토론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초점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 방식으로 총 1그룹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용된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interview)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평가 참여자에게 배부하여 인터뷰 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FGI 시행 전에 본 평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비밀보장 권리와 의무, 조사참여 철회 권리, 조사에 따른 보상 등 연구 윤리와 관련된 부분을 고지하였으며, 조사 참여에 대한 문서상의 동의를 받았다. 또한, 집단인터뷰 진행 중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그룹별 인터뷰 시간은 2시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내용은 녹취하고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표 1. 초점집단면담 방법 〉

구분	내용
1단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방법 및 수집 도구 확정 • 초점집단면담 대상자(그룹)의 속성 확정 및 모집 • 일정/시간/장소 결정 • 인터뷰 가이드 작성
2단계 (초기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신청자 참여요건 정보 점검을 통한 스크리닝 • 초점집단면담 대상자(그룹) 확정 • 인터뷰 관련 안내 및 사전 질문지 공유
3단계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인터뷰 진행(warming-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점집단면담 대상자 소개 등 래포(rapport) 형성 • 조사 목적 및 분석 방향에 대한 설명 • 진행방법 설명 및 녹음기 작동 확인
4단계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주제 관련 인터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일련의 질의 진행 - 개방형 추가 질문 및 조사 대상자 간 의견 교류
5단계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종료 • 직후의 타이핑(관찰 기록) • 녹음내용 정리 • 분석, 해석 • 보고서 작성

4. 초점집단면담 내용

본 초점집단면담은 질환 경험 및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도, 치료결정, 치료과정과 치료 후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설계하였으며,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5개 영역별 총 11개 항목)

〈 표 2. 초점집단면담 내용 〉

영역	항목
질환 경험 및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 시작 시기 (2) 질환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한 정도 (3)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이전 다른 치료법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 결정 이유
치료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법 결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법 추천인 (2) 치료법 결정의 어려움 정도 (3) 치료법 정보제공에 대한 충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결정 시 필요한 정보

영역	항목
치료과정	(1) 치료과정 중 불편함
치료 후	(1) 치료 후 불편함 (2) 치료 효과 만족 정도 (3) 치료법 추천 의향
기타	(1) 알레르기비염·천식 및 알레르기 면역요법(피하주사)에 대한 기타 의견

5. 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질적분석 방법으로서 조사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 범주화하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자가 줄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개념들을 찾고, 유사한 개념들을 함께 묶어가는 과정을 반복하여 범주화된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와 관련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며 자료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토의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II

평가결과

1. 참여대상자 특성

초점집단면담은 2023년 10월 14일에 진행하였으며,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알레르기비염·천식 진단을 받고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치료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7명을 1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는 30~60대 남성과 여성으로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였다. 2010~2022년 알레르기비염·천식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치료를 시작하거나 증상 발현 후 1년~13년 경과 후 치료를 시작하였다.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시술 시기는 2020~2023년이였다.

< 표 3. 참여대상자 특성 >

번호	성별	연령	직업	시술 시기	발병시기	치료 시작 시기
ID1	여성	60대	주부	2023년 7월	2010년	2010년
ID2	여성	30대	회사원	2022년 2월	2017년	2018년 3월
ID3	여성	30대	주부	2023년 5월	2022년	2022년 7월
ID4	여성	30대	회사원	2020년 5월	2020년	2020년 5월
ID5	남성	30대	회사원	2022년 10월	2003년	2016년 9월
ID6	남성	30대	자영업	2020년 11월	2020년	2020년 11월
ID7	남성	30대	회사원	2023년 8월	2015년	2022년 3월

2. 영역별 초점집단면담 결과

2.1. 질환 경험 및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도

2.1.1. 치료 시작 시기

Q. 언제부터 알레르기비염·천식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는지요?

환자들의 알레르기비염·천식 발병시기는 어릴 때부터 쭉 증상을 가져왔거나 혹은 증상이 없다가 성인이

된 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 성인이 된 후 증상이 시작된 경우는 출산 후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환자들이 있었고, 항원인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시작된 환자들이 있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온 기간은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환자들의 병원 방문 계기는 약국에서 산 콧물약이 효과가 없을 때, 다른 질환으로 방문한 후 원인 치료를 위해 알레르기 내과를 소개 받거나 본인이 검색하여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들은 내과 혹은 알레르기 내과에서 피검사 또는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검사를 했으며, 진단결과 환자들의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은 고양이 털,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이었다. 환자들은 호흡기, 눈, 입 관련 증상이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천식, 눈 가려움 및 부음, 결막염, 입천장 가려움의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증상은 특정 계절, 시간대, 상황에 따라 심해지기도 했다. 봄 가을 환절기, 에어컨 켜 때, 종이 넘길 때, 고양이가 근처에 있을 때, 건조할 때, 오전 시간대, 밤 시간대에 증세가 심해진 환자들이 있었다. 증상 시작 후 치료 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증상이 시작되어 감기인지 알레르기비염인지 정확히 모른 경우도 있었으며, 적절한 치료법을 찾더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미룬 경우도 있었다.

〈 표 4. 발병 시기 및 치료 시작 시기 〉

내용
<p>발견과 진단 : 발병 시기</p> <p>“초등학교부터 학생 때 계속 앓고 있다가”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어렸을 때부터 알레르기비염이 쪽 있었는데, 중학교 때”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발견과 진단 : 갑자기 알레르기 증상 발생</p> <p>“발병은 오래됐어요. 40년 된 것 같아요. 첫 애 낳고 나서 발병한 것 같아요.” (ID1, 여성, 60대, 주부)</p> <p>“저도 애를 낳고 체질이 변했는지. 2020년, 2021년쯤. 애 낳고 그때 미세먼지 심해지고 꽃가루하고 송진가루. 원래 안 그랬는데 콧물이 줄줄 나고 눈이 퉁퉁 부어서 안 떠질 정도로.” (ID3, 여성, 30대, 주부)</p> <p>“처음 있었던 것은 17년 11월경이고요. 그때 증상이 시작된 게 17년 초에 고양이를 데려오면서 열 굴이 간지럽다 하다가, 한 몇 달 지나고 11월쯤 되니까 콧물이 줄줄 나오고 눈에 흰 점막까지 붓고 시작됐어요. 그때는 이비인후과 가서 피부반응 검사를 했더니 고양이 알레르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원래 알레르기비염이 없었는데 와이프가 고양이 두 마리 키우던 걸 데리고 왔거든요. 같이 살다 보니 알레르기비염이 생긴 케이스예요.”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발견과 진단 : 치료기간 (1년 6개월 ~13년)</p> <p>“(13년) 2010년” (ID1, 여성, 60대, 주부)</p> <p>“(3년) 그렇게 시작하지 3년 조금 넘었어요.” (ID4, 여성, 30대, 회사원)</p>

내용
<p>“(7년) 초등학교부터 계속 앓고 있다가 치료 시작한 건 2016년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구글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제(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있다고 봐서 실비도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3년) 주사 치료 3년 정도 받았고요.”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1년 반) 주사 치료한 지는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병원 방문 계기 : 콧물약이 듣지 않을 때, 폐렴으로 병원 방문 후 원인 치료 위해 알레르기 내과 소개 받음</p> <p>“안 돼서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고. 안 낫더라고요. 아무리 이 약국 저 약국 다 다녀도.(병원 방문)” (ID1, 여성, 60대, 주부)</p> <p>“대학병원에 있어서 갔다가 검사 여러 가지 받았거든요. 호흡기 검사도 받고 했는데,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간 거죠.”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맨 처음에 병원을 간 것은 폐렴 때문에 갔고요. 호산성 폐렴이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 환자에게 잘 나타나는 호산구 증가 때문에 생기는 건데. 폐 센터 교수님이 알레르기 내과 교수님을 연결시켜줬고” (ID4, 여성, 30대, 회사원)</p>
<p>알레르기 항원 : 고양이 털,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p> <p>“18년 초에 다시 검사를 하니까 고양이 털 알레르기 집 먼지 알레르기가 나오더라고요.”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집먼지랑 꽃가루 나무 가루는 다 있더라고요.” (ID3, 여성, 30대, 주부)</p> <p>“알레르기 자체는 집 먼지와 고양이.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심한 것은 먼지 쪽.” (ID4, 여성, 30대, 회사원)</p> <p>“집 먼지 진드기와 고양이 털, 고양이 카페에 자주 갔었어요.”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고양이”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털이란 털은 다 있고 집 먼지 진드기도 있고”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증상 :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천식, 눈 가려움 및 부음, 결막염, 입천장 가려움</p> <p>“재채기하고 콧물하고 아주 심해요. 코 막힘도 있는데, 재채기를 그렇게 해요. 콧물이랑. 맑은 콧물. 입천장이 간지러워요.” (ID1, 여성, 60대, 주부)</p> <p>“얼굴이 간지럽다 하다가 콧물이 줄줄 나오고 눈에 흰 점막까지 붓고 시작됐어요.”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콧물이 줄줄 나고 눈이 퉁퉁 부어서 안 떠질 정도로. 아침에 붓고 가려우니까 이렇게 하니까 충혈 되고.” (ID3, 여성, 30대, 주부)</p> <p>“콧물이 엄청 났고. 천식 때문에 가끔씩 숨 차 정도. 이걸 한번 뿌리고, 레볼라이저 한번 뿌리는 정도였거든요.” (ID4, 여성, 30대, 회사원)</p>

내용
<p>“맑은 콧물과 재채기가 제일 심했구요.”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눈도 많이 간지럽고 계속 콧물 나오고, 나중에 천식처럼 호흡 기관지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코가 흐르는 것도 있었는데 뒤로 넘어가서 목에 걸리는 크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환절기 때 재채기가 건물 밖에 딱 나가면 40번씩 하고, 알러지성 결막염 있어서 심했는데”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내과, 알레르기 내과에서 알레르기 검사(피검사, 피부 반응 검사)</p> <p>“이비인후과 가서 피부 반응 검사를 했더니 고양이 알레르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보다 하고 지내다가 또 괜찮다가 또 다시 나타나다가. 다른 병원. 이번에는 알레르기 내과를 갔어요.”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대학병원에 있어서 갔다가 검사 여러 가지 받았거든요. 호흡기 검사도 받고 했는데, 알러지 내과였나 그랬을 거예요. 피 검사를 해보더니 나오더라고요.”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근처 내과를 갔는데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 저는 팔에 항원 별로 짝 했는데”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환자가 반응하는 환경에 따라 증상 강도 다름 (봄가를 환절기, 에어컨 켤 때, 종이 넘길 때, 고양이 근처 있을 때, 건조할 때, 오전 시간대, 밤 시간대)</p> <p>“환절기 때 가장 심하고, 겨울이나 여름에는 조금 덜해요. 알레르기비염이 없었나 할 정도로 보낼 때도 있어요. 아침에 심해요.” (ID1, 여성, 60대, 주부)</p> <p>“저는 사계절 내내 거의 그렇고요. 봄여름에 원래 괜찮았는데 여름에 에어컨 틀면서 되더라고요. 계속 심한 편이에요. 실내에서도 에어컨 바람을 직방으로 쐬면 그럴 때”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봄 가을에는 맑은 콧물하고 더불어 눈이 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꽃가루 때문이었구나” (ID3, 여성, 30대, 주부)</p> <p>“꽃가루 날릴 때 봄 가을이 제일 심했고, 사계절 내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집 먼지라서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했고. 특히 종이 같은 것에도 먼지가 있나 봐요. 시험지 넘길 때 되게 심하더라고요.”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알러지원은 고양이라서 애네와 붙어 있을 때는 심하고요. 알레르기비염 천식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사계절 내내 그런 것 같은데, 유독 심한 게 건조할 때. 역으로 여름에 장마철 되면 편하거든요. 습도가 높으면 코가 편안해서.”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환절기 때는 재채기 콧물이 있고. 저는 밤에 심한 것 같아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저녁에 입도 마르고 마른 기침도 있고.”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증상 시작 후 치료 시기 간 긴 시차 발생 이유 : 감기인지 알레르기비염인지 몰랐음, 비싼 치료비</p> <p>“항히스타민제 처방받고 약 먹고 버티다가, 누가 이런 면역 치료가 있다고 하기는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ID3, 여성, 30대, 주부)</p> <p>“어렸을 때부터 알레르기비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알레르기비염인지 감기인지 헷갈려서 알지도 못해</p>

내용

서 그냥 계속 앓고 있다” (ID5, 남성, 30대, 회사원)

2.1.2. 생활의 불편한 정도

Q. 알레르기비염·천식으로 평소 생활하시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요?

알레르기비염·천식 환자들이 느낀 불편함의 유형은 사회생활 불편함,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삶의 질 저하 및 심리적 위축, 기타 유형의 불편함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의 불편함은 재채기, 콧물, 향 때문이었다. 독서실, 학교, 직장에서 심한 재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계속 신경을 써야 했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콧물로 마스크를 교체하거나 콧물을 닦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향에 예민해져 사람들을 만나면 향수, 유연제 냄새를 맡으면 증상이 발현되어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있었다.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으로 졸려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움, 변비, 입이 마르고 마른 기침을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눈에 눈곱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보면 민망할까봐 계속 눈을 만지거나 코를 마시는 등의 새로운 습관이 생긴 환자도 있었으며, 계속 눈을 비비게 되면 시력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환자도 있었다.

< 표 5. 알레르기비염·천식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한 정도 >

내용

사회생활 : 독서실, 학교, 직장에서 심한 재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듯한

“거래처와 얘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나오면 말을 멈추게 되잖아요. 코가 간지러우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일 때도 있고.” (ID6, 남성, 30대, 회사원)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할 때 조용히 독서실이나 학교에서 하는데, 재채기를 엄청 하거나 피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인데 신경이 많이 쓰이고. 취업해서도 일하다가.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계속 신경이 쓰이죠.” (ID7, 남성, 30대, 회사원)

사회생활 : 코로나19 기간 동안 콧물로 마스크를 교체하거나 콧물을 닦으면 사람들 눈치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마스크 밑으로 콧물이 계속 흐르니까. 마스크가 젖는데 눈치 보면서 마스크를 계속 가는 거예요. 몰래 풀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눈치 주고, 너무 괴로웠어요. 지하철 타거나 이동하거나 이럴 때. 도서관에서도” (ID3, 여성, 30대, 주부)

사회생활 : 향에 예민해져 사람을 만났을 때 증상 발현

“향에 민감해져서 향수, 건조기 유연제 냄새를 맡으면 코가 따갑고 간질간질하고. 사람 만날 때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특히 아파트 사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세탁제 냄새가 올라와요. 그것도 싫어지

내용
<p>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잘 못 열고.”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삶의 질 저하, 심리적 위축</p> <p>“그럴 때는 안 살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도 많았어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입술을 잔뜩 발라 놔는데 코 풀고 또 다시 바르고. 설 새 없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ID1, 여성, 60대, 주부)</p>
<p>항히스타민제 부작용 : 졸려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움, 변비, 입이 마르고 마른 기침</p> <p>“항히스타민제 먹으니까. 그때 자격증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맨날 졸고,” (ID3, 여성, 30대, 주부)</p> <p>“학생일 때 재채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우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이 항히스타민제다 보니까 먹으면 계속 졸리고,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저는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이 변비가 있었어요. 그거 때문에 더 고생하고.”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코가 확 마르니까 오히려 입이 말라서 척척 갈라지고 마른 기침이 오히려. 약을 먹으면. 그 뒤로는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새로운 습관 : 눈곱 때문에 눈을 만지게 됨, 코를 마시는 습관</p> <p>“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눈이 자주 가려우니까 눈곱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없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눈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눈곱이 생기면 민망하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이렇게 자꾸 하면 시력도 떨어진대요. 계속 비비면” (ID3, 여성, 30대, 주부)</p> <p>“코가 흐르지는 않는데 뒤에서 걸려서 이렇게 마시는 습관이 생기고.” (ID7, 남성, 30대, 회사원)</p>

2.1.3.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 이전 다른 치료법 경험

Q. 알레르기비염·천식으로 인해 받은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이전에 다른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환자들은 알레르기비염·천식의 개선을 위해 코수술, 항히스타민제 복용, 스테로이드 사용, 시판 약국약 사용, 코 세척, 한의원 침 맞기, 한약 먹기, 그 외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수술을 받은 2명의 환자는 초기에 잠시 효과가 있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약국에서는 처방 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알레르기비염약, 안약, 나잘 스프레이, 네블라이저를 이용하면 증세가 가라앉았다. 이비인후과에서 코 세척을 하면 일시적인 증상 개선만 있었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한약을 먹었지만 환자들은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환자 스스로도 생활습관이나 제품 구입 등을 통해 항원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하면 재채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습기를 구입 사용하였으며, 침구 세척, 에어컨 청소, 집 청소 등 세탁 및 청소의 빈도가 증가했으며, 무항 세제나 알레르기 이불을 구입해서 사용했다. 향원을 없애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에 키우던 고양이를 입양 보냈고, 눈의 가려움을 줄이기 위해 따뜻한 물을 마시고 냉찜질을 하기도 했다. 프로폴리스 같은 건강식품을 섭취하기도 했다.

〈 표 6.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이전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 경험 〉

내용
<p>코수술</p> <p>“(20년 전) 알레르기비염 있는 사람들은 코 속 뼈가 삐뚤어져서 그런 거라고 수술을 해서 뼈를 반듯이 깎아야 된대요. 한달 정도는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코 풀고 하니까 다시 삐뚤어졌는지 별로 효과가 없어요.” (ID1, 여성, 60대, 주부)</p> <p>“병원에서 수술을 한 번 하고 잠깐 좋아졌는데, 다시 또 돌아오더라고요.”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항히스타민제 복용, 스테로이드 사용</p> <p>“항히스타민제 처방받고 약 먹고 버티다가” (ID3, 여성, 30대, 주부)</p> <p>“원래는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쓰다가 조금씩 줄여서 지금은 하나는 계속 먹고 있고, 두 가지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먹고 있어요.” (ID4, 여성, 30대, 회사원)</p> <p>“약국 약을 제일 많이 먹었고요. 항히스타민제인데 그린로즈였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네.”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가라앉으니까. 약국 가면 파니까요. 저도 이게 알려지인가 싶어서 약국 가서 알려지 약 주세요, 하면 뭐 주잖아요.”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시판 약국약 사용 (처방 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알레르기비염 약, 결막염으로 약국서 파는 안약 사용, 나잘 스프레이, 네블라이저 사용)</p> <p>“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가라앉으니까, 약국 가서 알려지 약 주세요, 하면 뭐 주잖아요. 왜냐하면 고양이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애네들 안고 있거나 침이 닿으면 올라오니까 그때 안 거죠.”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알러지성 결막염 있어서 심했는데, 지금은 간지럽다 싶으면 피곤해서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 무조건 약국에서 파는 안약을 넣으면 바로 잠잠해지길래 눈은 그렇게 하고”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스프레이 나잘 약을 많이 뿌렸는데. 나잘을 뿌리면 어쨌든 비강을 강제로 넓혀 놓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자기 전에만 뿌려주는 걸로 해도 코 막히는 건 덜 하나니까.”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저도 뿌리는 스프레이도 해봤는데 저도 2주 정도 쓰다가 안 쓴 것 같고요.”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나잘 스프레이 달고 사는 거고” (ID3, 여성, 30대, 주부)</p>

내용
<p>“(천식) 네블라이저 한번 뿌리는 정도였거든요.” (ID4, 여성, 30대, 회사원)</p> <p>이비인후과에서 코 세척</p> <p>“코 세척하는 거. 물론 이상민이 하는 것도 하고.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이비인후과 가서 소독하고 세척하는 것도 있었고. 코요. 그때만 잠깐 좋았었고”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한의원 침 맞기, 한약 먹기</p> <p>“한의원도 느릅나무 껍질로 만든 것이 아주 유명하대요. 거기도 1년 넘게 다녀도 아무 효과 없어요.” (ID1, 여성, 60대, 주부)</p> <p>“한의원 가서 침 맞아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효과 없었어요.”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일상생활 측면 : 여러 대의 가습기 구입</p> <p>“가습기 쓰고.” (ID1, 여성, 60대, 주부)</p> <p>“건조하면 말하다가 갑자기 코 간질간질하면 재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비싼 것을 여러 개 샀는데”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일상생활 측면 : 세탁 및 청소 빈도 증가 (침구 세척, 자주 청소, 에어컨 청소)</p> <p>“돌돌이 같은 것은 맨날 옆에 놓고 먼지 다 해도.” (ID1, 여성, 60대, 주부)</p> <p>“에어컨 청소도 하고, 저희는 이불 시트 맨날 빨거든요. 먼지 때문인가 싶어서.” (ID3, 여성, 30대, 주부)</p> <p>“고양이가 항상 같이 자거든요. 침대에서. 이불을 자주 털고, 청소기 자주 돌리고. 저는 청소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자주 털고 건조기 자주 돌리고.”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일상생활 측면 : 사용 상품 교체 (무향 세제, 알레르기 이불 구매)</p> <p>“세제나 이런 것도 무향으로 바꿨어요. 향이 자극적이니까 바꾸고.”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이불도 알레르기 방지 이불 쓰고.” (ID1, 여성, 60대, 주부)</p>
<p>일상생활 측면 : 향원을 없애기 위해 고양이 입양 보냄</p> <p>“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향원을 없애는 게 제일 좋다고 해서 고양이 키우던 것을 입양을 보냈어요. 5년 키우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천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ID3, 여성, 30대, 주부)</p>
<p>일상생활 측면 : 눈가 가려움 줄이기 위해 따뜻한 물 마시고, 냉찜질</p> <p>“(눈 부으면)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냉찜질을 해보기도 하고.” (ID3, 여성, 30대, 주부)</p>
<p>일상생활 측면 : 건강식품 섭취</p>

내용
“프로폴리스도 먹어봤고” (ID5, 남성, 30대, 회사원)

2.1.4. 치료 결정 이유

Q. 그럼 이번에 알레르기비염·천식으로 치료를 받기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 결정은 환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사가 먼저 치료를 권한 것보다 환자가 치료를 결정한 경우가 더 많았다. 환자들은 수면 장애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무기력증, 우울증, 짜증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침, 고양이와 살기 위해, 자녀 계획 중 자녀 면역력 유전 개선, 가족이나 타인의 불편함, 폐 균염, 일상생활 불편함 개선을 위해 알레르기비염·천식의 치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장애는 코가 막혀 입을 벌리고 자면서 수면 부족으로 피로가 쌓이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졸음운전을 한 위험도 있었다. 병원을 가도 증상의 개선이 없고 약물을 먹으면서 계속 졸음을 느끼면서 자녀에게 짜증을 내거나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졌다. 잦은 빨래, 환기, 수면 중 후비루로 배우자가 불편해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의 불편함, 증상이 발전하여 폐가 균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작게는 콧물로 인한 화장 수정의 번거로움 등도 개선하고 싶어 치료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 결정 이유 >

내용
환자의 선택(여, 4명), 의사의 권유(남, 1명)
“내가 했죠.” (ID1, 여성, 60대, 주부)
“저도 제가.” (ID2, 여성, 30대, 회사원)
“저도.” (ID3, 여성, 30대, 주부)
“이게 폐렴이었다 보니까 증상이 발전해서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원인을 못 찾아서, 그때 폐가 균을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야겠다 싶어서” (ID4, 여성, 30대, 회사원)
“저는 검사했는데 항원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러다 죽는다고 해서 한 거예요.” (ID6, 남성, 30대, 회사원)
“그런 것(치료법)이 있다고 해서.” (ID7, 남성, 30대, 회사원)

수면 장애로 삶의 질 저하 (집중력 저하, 피로도 증가)

“코가 막히니까 입에 벌리고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왜냐하면 코가 막혀서 벌리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너무 아파요. (잠 못자서) 집중이 잘 안 되고. 운전하다가 졸리

내용

고. 항히스타민제로 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ID3, 여성, 30대, 주부)

“잠 잘 때 입 벌리고 자서 잠을 많이 자도 피로도 계속 쌓이고” (ID7, 남성, 30대, 회사원)

심리적 변화 (무기력증, 우울증, 짜증) → 일상생활에도 영향

“진짜 너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심할 때는. 그때는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싫어요. 아무리 유명하
다는 데 가도 듣지 않으니까.” (ID1, 여성, 60대, 주부)

“나중에는 우울증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짜증이 나고, 애들한테 짜증도 많이 내게 되고 생활이 힘들
죠.” (ID3, 여성, 30대, 주부)

“저도 약을 먹어서 계속 줄리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귀찮았어요. 자고 싶고.” (ID5, 남성, 30대, 회
사원)

고양이와 살기 위해서 치료 결심

“고양이를 키웠었으니까, 계속 키우고 데리고 살고 싶어서 몇 년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던 거죠.” (ID2, 여성, 30대, 회사원)

“고양이들도 워낙 와이프와 오래 살았던 애들이니까 저도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게 크고요.”
(ID6, 남성, 30대, 회사원)

자녀 계획 중 자녀 면역력 유전 개선

“처음에 상담 받았던 게 2세를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항원이 사라지면 내려갈 수도 있다. 내
애한테는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겨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비싸더라도 해야겠다 싶
어서 한 거예요.” (ID6, 남성, 30대, 회사원)

가족이 불편함을 느낌 (젓은 빨래, 환기, 수면 중 후비루로 배우자가 불편)

“남편이 매우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 빨래도 매일 해야 되고 환기도 자주 시
키자고 하니까,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증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ID2, 여성, 30대, 회사원)

“저도 신랑이 되게 싫어해요. 콧물이 후비루 넘어가거든요. 자다가 크흐흠 계속 이러니까, 그거 좀
안 할 수 없냐고.” (ID3, 여성, 30대, 주부)

타인의 시선 (공공장소 이용, 친구들의 농담)

“좀 더러워 보이잖아요. 계속 콧물에 사람이 추접스러워져요. 깔끔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콘서트장 갔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음악 듣는데 계속 휴지로 하고 크흠 하고, 가면 안 되겠다.”
(ID3, 여성, 30대, 주부)

“자꾸 코를 하다 보면 먹잖아요. 친구들이 농담으로 맛있어?” (ID6, 남성, 30대, 회사원)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있으면 재채기. 누가 봐도 코로나가 아닌데 재채기하면 옆에서 보고. 어쩔

내용
수 없어서 구석에서 몰래 하고.” (ID7, 남성, 30대, 회사원)
폐가 굳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이게 폐렴이었다 보니까 증상이 발전돼서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원인을 못 찾아서, 그때 폐가 굳을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야겠다 싶어서” (ID4, 여성, 30대, 회사원)
콧물로 화장이 지워져 수정 화장
“화장은 아니지만 BB 바르고 나가는데 콧물이 나면 여기만 지워지면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고” (ID7, 남성, 30대, 회사원)

2.2. 치료 결정

2.2.1. 치료법 결정 이유

Q.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를 위한 여러 치료법 중에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을 받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자들이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을 치료법으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3~5년이면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높은 치료율과 의사가 다른 치료 대안이 없다면서 추천했기 때문이었다. 사용 중인 치료제의 부작용 때문에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을 선택한 환자도 있었다. 환자 7명 중 6명이 고식적 면역요법으로 치료 받았으며, 바빠서 치료시간이 부족했던 한 환자는 반나절 동안 입원하여 급속면역요법으로 치료 받았다.

한편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부족하고 대기 환자가 많다는 점은 환자들이 이 치료법 선택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비싼 치료비 때문에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한 환자도 2명 있었다.

알레르겐 면역요법 중 설하요법의 경우 환자들은 치료하는 병원이 주변에 없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표 8. 치료법 결정 이유 >

내용
3~5년만 치료하면 되는 궁극적 치료방법

내용
<p>“제일 끌린 것은 3년에서 5년만 치료받으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ID3, 여성, 30대, 주부)</p> <p>“저도 근본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근본적으로 빨리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했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저도 똑같은데 저는 그거에 혹했던 것 같아요. 3~5년만 하면 평생 자유가 된다.”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약물 부작용으로 약을 끊기 위해 선택</p> <p>“약에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변비가 있었으니까, 약을 끊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을 한 거죠. 나잘 스프레이는 6개월 이상 하면 코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결국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니까”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높은 치료 가능성</p> <p>“치료 확률이 70%라고 했던 것 같아요. 70%가 확률이 높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의사 추천, 다른 대안 없음</p> <p>“지금 상황에서 알레르기에 대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알레르겐 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ID4, 여성, 30대, 회사원)</p>
<p>시술방법 선택 : 고식적 면역요법(6명), 급속면역요법(1명)</p> <p>“(고식적 면역요법) 조금씩 일주일 간격으로 맞다가 한 달 유지치료 하고” (ID3, 여성, 30대, 주부)</p> <p>“(급속면역요법) 입원해서 했었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 입원실이 있어서 누워 있으면 30분, 1시간 간격으로 와서 약을 계속 달아줘요. 맞고 저는 누워 있고, 반나절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에 다 끝낸 거예요. 바빠서 시간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어지럽고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입원하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날 빨리 끝내겠다 해서”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 시작의 걸림돌 : 치료 가능 병원 부족, 대기 김</p> <p>“대기가 길어서.” (ID1, 여성, 60대, 주부)</p> <p>“땀지가 없어서. 저도 망설였던 이유가 비용도 있지만 대학병원까지 가면 대기가 너무 길어서 망설였는데, 동네 병원도 줄서요.” (ID3, 여성, 30대, 주부)</p> <p>“대전 같은 경우는 하나인데, 대전에서 하면 전남에서까지도 올라와요.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다 와요. 제가 다니는 병원이 노났죠. 건물을 샀어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ID6, 남성, 30대, 회사원)</p>

내용
30대, 회사원 “주말 토요일 아침에 잠실 가서 맞고 다시 오는데 힘들더라고요.” (ID7, 남성, 30대, 회사원)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 시작의 걸림돌 : 실비보험 적용 여부
“(실비보험 처리가 안됐다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ID3, 여성, 30대, 주부) “(실비보험 처리가 안됐다면) 굳이 이 돈까지 내면서 안 했을 것 같아요.” (ID6, 남성, 30대, 회사원)
설하요법 의견 : 설하요법 치료 병원 없음, 효과 떨어짐
“주변에 설하요법 하는 데가 없었고, 설하요법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ID3, 여성, 30대, 주부) “설하도 있었는데 효과가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계속 먹는 게 번거롭기도 할 것 같고.” (ID5, 남성, 30대, 회사원)

2.2.2. 치료법 추천인

Q. 누구로부터 해당 치료를 추천받으셨습니까?

알레르기비염·천식 환자들은 의사, 지인, 본인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치료법을 추천받거나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9. 치료법 추천인 >

내용
의사 (3명)
“저는 당시 TV뉴스 시간에 조중생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서” (ID1, 여성, 60대, 주부) “의사” (ID4, 여성, 30대, 회사원) “의사” (ID7, 남성, 30대, 회사원)
지인 추천 (2명)
“지인이 치료를 받고 있어서” (ID2, 여성, 30대, 회사원) “와이프가 검색해줘서.” (ID6, 남성, 30대, 회사원)
본인의 인터넷 검색 (2명)

내용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ID3, 여성, 30대, 주부)
“저도 검색해서.” (ID5, 남성, 30대, 회사원)

2.2.3. 치료법 결정의 어려움 정도

Q.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를 위해 여러 치료법 중에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까?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를 위해 여러 치료법 중에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을 통한 치료 결정의 어려움으로 1~7점으로 평가하여 고민의 정도가 환자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7점으로 상대적으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은 환자들은 부작용 우려, 주기적 치료의 번거로움,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거부감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점으로 상대적으로 치료법 선택에 어려움 낮았던 환자들은 부작용 있더라도 증상 치료가 더 급했다고 응답했다.

〈 표 10. 치료법 결정의 어려움 정도 〉

내용
선택 어려움 높은 편 (5~7점, 2명) : 부작용 우려, 주기적 치료의 번거로움과 주사 거부감
“(7점) 그 당시에는 면역주사 맞는다는 것이 맞으면 나중에 이상한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니까 겁나서 걱정 많이 했어요.” (ID1, 여성, 60대, 주부)
“(5점) 어쨌든 주사를 유지 치료하더라도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되니까, 그것도 번잡하기도 하고. 어쨌든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5점” (ID6, 남성, 30대, 회사원)
선택 어려움 낮은 편 (1~4점, 5명) : 부작용 있더라도 증상 치료가 더 급했음
“(1점) 약은 그전에 부작용이 있기도 했고, 이진 성분 자체가 항원 성분을 넣는 거라고 들어서. 쇼크가 와도 어차피 병원에 있으면, 대학병원에 다녔거든요. 거기서 처치해 주겠지, 하고 쉽게 생각했어요.” (ID2, 여성, 30대, 회사원)
“(1점) 실비 때문에 비용도 해결이 됐고. 대학병원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괴로웠던 것에 비하면.” (ID3, 여성, 30대, 주부)
“(1점)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만 살짝 있었는데 그래도 치료해 주겠지 생각으로.” (ID4, 여성, 30대, 회사원)
“(2점) 알레르기비염 치료가 더 급했기 때문에. 알레르기비염으로 불편했던 게 훨씬 더 커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게 심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부작용) 붓고 가렵고. 심각하면 아낙필락시스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조금 겁나긴 했는데” (ID5, 남성, 30대, 회사원)
“(4점) 알레르기비염으로 힘든 것이 더 커서.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한 달

내용
에 한 번이고, 몸이 진짜 이상하다 하면 안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끊을 수가 있으니까.” (ID7, 남성, 30대, 회사원)

2.2.4. 치료법 정보제공자

Q. 치료법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알레르기비염·천식 환자들은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법에 대해 의사에게 모두 설명을 들었다. 코디네이터가 있는 병원을 이용한 한 환자는 의사에게는 주사치료와 치료기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코디네이터에게 주사 방식 등 자세한 설명을 들은 경우가 있었다.

< 표 11. 치료법 정보 제공자 >

내용
의사가 치료법 설명
“의사 선생님” (ID1, 여성, 60대, 주부)
“교수님이 다 설명해 줬어요.” (ID4, 여성, 30대, 회사원)
“의사 선생님” (ID5, 남성, 30대, 회사원)
의사 + 코디네이터가 치료법 설명
“(대학교수가) 개원한 데로 간 거예요. 제가 갔던 데는 코디네이터가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끝. (의사는) 주사 치료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 3년 5년 정도 이 정도 설명만 하면, 나머지 주사를 받는 방식도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시간도 얼마나 드는지 코디가 알려 줬어요.” (ID6, 남성, 30대, 회사원)

2.2.5. 치료법 정보의 충분 정도

Q.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를 위해 해당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

의사로부터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았는지에 대해 환자들은 4~9점으로 평가하였다. 7~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한 환자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완치율, 부작용, 치료제 사용 이유 및 치료제 수급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받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4점으로

상대적으로 치료법 정보 제공에 대해 낮게 평가한 환자는 의료진이 친절하지 않았고, 자세한 설명을 코디네이터에게 넘겼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 표 12. 치료법 정보 제공의 충분 정도 〉

내용
<p>7~9점 (6명) : 충분한 시간, 완치율, 부작용, 치료제 사용 이유 및 치료제 수급상황 → 환자 불안감 해소가 중요</p> <p>“(7점) 이미 TV에서 한번 설명을 듣고 가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니까.(방송출연 의사)” (ID1, 여성, 60대, 주부)</p> <p>“(8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고, 특히 완치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부작용도 얘기해 주시고.”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9점) 나중에는 선생님이 쫓아 나오면서까지 해 주셔서. 선생님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약 수급 불안정할 수 있다. 특수해서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몇 달 전에 미리미리 내가 주문해 두겠다고.” (ID3, 여성, 30대, 주부)</p> <p>“(9점) 불안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왜 이 약을 써야 되는지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ID4, 여성, 30대, 회사원)</p> <p>“(9점) 설명을 잘해 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이것저것 부작용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9점) 처음에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돌이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시간을 줘서 저는 찾아보고 해서 9점.”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4점 (1명) 친절하지 않고, 코디네이터가 설명</p> <p>“(4점) 제가 있는 지역이 독과점이라 안 친절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코디네이터한테 토스해 놓고 끝낸 거니까.” (ID6, 남성, 30대, 회사원)</p>

2.2.6. 치료법 결정 시 필요한 정보

Q. 치료를 결정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하였습니까?

환자들은 치료를 결정할 때 원인, 비용, 치료 빈도, 치료 기간, 치료 효과와 성공률,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사가 설명하면 좋지만 대기자가 많고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 설명해도 된다고 느꼈다. 적정 설명시간으로는 10분을 이야기했으며, 다른 주사보다 더 아프기 때문에 주사 통증과 상세한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환자에 따라 1회 치료비용이 달랐으며, 적게는 3~6만원대, 많게는 10만원대도 있었다.

< 표 13. 환자가 정의하는 충분한 정보 제공의 의미 >

내용
<p>비용 (3~6만원대 vs. 10만원대)</p> <p>“검사도 엄청 하고. 경희의료원은 더 싸요. 저는 3만원 정도밖에 안 내요. 주사 종류에 따라 다른가 보다. 여러 개 맞으면 더 가는데, 저는 진드기 하나 맞는데 3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ID1, 여성, 60대, 주부)</p> <p>“주사제 자체가 10회에 40만원 정도라고 했고. 한번 갈 때마다 진료비 1만5천원. 시립병원이 보라매 병원이라서싼 것 같아요.”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진료비는 1만8천원이고, 주사비 2만원이고, 약재비가 10개월에 60~7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전체 치료까지 자기 생각에는 400~500만원 들고 3년에서 5년 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년에서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얘기해 주셔서.” (ID4, 여성, 30대, 회사원)</p> <p>“비용이 제일 중요하고. 3개월에 20만원 정도.”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저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영국 수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그렇게 치면 4~6만원 정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10만 4천원 정도 나와요. 주사 맞고 진료. 5주 정도에 맞춰서 가는데. 가면 104,200원 나오는 것 같아요.”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이건 비싸니까. 저는 한 세트 주문하면 80만원이거든요. 3~4개월. 영국에서 온대요.” (ID3, 여성, 30대, 주부)</p>
<p>치료 빈도</p> <p>“얼마나 자주 와야 되는지”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치료 기간</p> <p>“치료 기간 얼마나 되는지”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치료 효과와 성공실패 확률도 언급해야 함</p> <p>“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실패 확률을 더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아까 70%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완치 개념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시작했거든요.”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부작용</p> <p>“부작용이 적고. 설명해 주면 덜 불안한 것 같아요.” (ID1, 여성, 60대, 주부)</p> <p>“한 번 맞으면 진짜 엄청 부어올라요. 절반 이상으로 부어올라서 간지럽고 뜨거워서 먼저 얘기를 해</p>

내용
야 될 것 같아요.” (ID4, 여성, 30대, 회사원)
종이에 써서 설명, 유인물 제공
“종이에 쓰면서 설명해주고, 혹시 필요하면 인쇄해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고.” (ID3, 여성, 30대, 주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번 하면서 이걸 얼마 정도 들고” (ID6, 남성, 30대, 회사원)
원인은 짧게 설명 (의사 설명이 좋으나 대기자가 많고, 인터넷 검색 방법이 있음)
“간략하게.” (ID1, 여성, 60대, 주부)
“설명 받으면 좋은데 대학병원엔 내 뒤에 사람이 엄청 대기가 있어서 쫓리거든요. 인터넷에 요새는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좋긴 하죠.” (ID2, 여성, 30대, 회사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ID4, 여성, 30대, 회사원)
적정 설명시간 : 10분
“10분.” (ID4, 여성, 30대, 회사원)
“10분 정도.” (ID5, 남성, 30대, 회사원)
“10분 정도.” (ID7, 남성, 30대, 회사원)
사전 제공 필요 정보 : 주사 통증, 주사 부작용
“아프다. 다른 것에 비해서 주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주사 부작용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ID4, 여성, 30대, 회사원)

2.3. 치료 과정

2.3.1. 치료 과정 중 불편함

Q.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를 위해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을 받는 과정 중에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환자들은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으로 치료하는 과정 중 알레르기 항원 검사 시의 따끔함, 주사 후의 가려움과 피부를 긁어서 붓고 살이 까졌던 경험, 긴 치료기간과 빠짐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불편사항으로 언급했다. 특히 치료 기간이 길고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의 최대 단점으로 꼽으면서 치료 기간이 단축되거나 치료 빈도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기도 했다. 일정 간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다시 주사제의 양을

조절하여 치료기간이 늘어난다는 점도 불편함이 있었다.

< 표 14. 치료 과정 중 느낀 불편함 >

내용
<p>치료과정 : 알레르기 항원 검사</p> <p>“저는 검사 과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피하에 등에 짝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보는데 따끔따끔 계속 느껴 놓고 힘들었어요.” (ID3, 여성, 30대, 주부)</p>
<p>시술 후 : 주사 후 가렵고, 긁어서 붓고, 살이 까짐</p> <p>“주사를 맞으면 부위가 간지러워서 긁으면 부풀어 오르고 살이 까질 때까지 긁으니깐. 3일 정도는 굉장히 간지럽거든요.”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긴 치료 기간 통과 꾸준히 가야 하는 점, 치료시간 놓치면 치료기간 늘어남</p> <p>“(주사 기간)3년 5년씩 안 하고, 1년이라도 단축이 되면.” (ID1, 여성, 60대, 주부)</p> <p>“맞는 간격이 길게 안 될까. (한 달에 한 번) 맞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6개월에 한 번 어떻게 안 되나.” (ID3, 여성, 30대, 주부)</p> <p>“이것의 최대 단점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오래 가고 꾸준히 가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놓치면 용량을 또 조절하시거든요. 다시 줄였다가 다시 올려야 되고. (놓치면 치료기간 길어짐)” (ID4, 여성, 30대, 회사원)</p>
<p>시술 후 : 쇼크를 대비 30분 병원에서 대기해야 하지만 환자들 불만은 없음</p> <p>“30분 앉았다 가라고.” (ID3, 여성, 30대, 주부)</p> <p>“안 기다리고 5분 있다가 와요. 습관이 돼서.” (ID1, 여성, 60대, 주부)</p>

2.4. 치료 후

2.4.1. 치료 후 불편함

Q.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를 위해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을 받은 이후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 후 약 수급 문제로 치료를 중단한 한 환자는 현재 불편함은 없지만 미흡하게 치료를 종료하여 재치료시 초기치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점을 불편점으로 꼽았다. 그 외 증상 개선 후 콧물 증상이 조금씩 나빠짐을 느끼는 환자가 있었으며, 3년 간 치료를 했으나 효과 없이 증상이 더 나빠졌다고 느껴 치료를 포기한 환자도 있었다.

〈 표 15. 치료 후 느낀 불편함 〉

내용
<p>미흡하게 치료 종료시 초기치료부터 다시 받아야 함</p> <p>“저는 안 가고 있어요. 저는 약 수급 때문에 2년마다 강제 중단이 됐는데, 지금은 별 불편함이 없는데. 선생님이 치료가 미흡한 상태로 끝났잖아요. 불편하면 처음부터 다시 맞아야 된대요. 일주일 간격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2년 정도 받았어요. 사실 부족하거든요.” (ID3, 여성, 30대, 주부)</p>
<p>콧물</p> <p>“콧물이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것을 서서히 느끼고 있거든요.” (ID3, 여성, 30대, 주부)</p>
<p>효과 없어 포기</p> <p>“저는 치료 포기했어요. 효과가 없고 심해지기만 하고. 19년부터 했으니까 3년 넘게 했거든요. 중단하고 안 갔어요.” (ID2, 여성, 30대, 회사원)</p>

2.4.2. 치료 효과 만족 정도

Q.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를 위한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효과에 만족하십니까?

환자들은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의 치료 효과를 판단할 때 콧물, 재채기, 눈 주위 가려움 등의 증상 완화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생각했으며, 그 외 피검사 수치의 개선과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면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알레르기비염·천식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10점으로 환자마다 느끼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효과를 6~10점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환자들은 증상 개선으로 치료 중단했거나 완치는 아니지만 항원 노출시에도 증상의 개선이 있는 경우였다. 치료 효과를 1~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환자들은 증상의 개선이 없다고 느끼거나 피검사 수치에는 개선이 있지만 기대보다 수치의 개선이 낮거나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먹고 있어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요인의 효과인지 정확치 않다고 느낀 경우였다. 실제로 환자 중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환자가 7명 중 5명이 있었다. 약물도 매일 먹는 환자가 있는 반면 증상이 심할 때 약물도 먹으라는 의사의 가이드를 받은 환자도 있었다.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향상 되었고,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이 사라지고, 코로 숨 쉬면서 두통이 사라져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느꼈다.

< 표 16. 치료 효과 >

내용
<p>가장 중요한 효과 측정 지표 (증상 완화 : 콧물, 재채기, 눈 주위 가려움)</p> <p>“증세가 덜 나타나고. 재채기도 덜 나고.” (ID1, 여성, 60대, 주부) “콧물이 덜 나고.” (ID4, 여성, 30대, 회사원) “저는 고양이 알러지원이니까, 가끔 실험해 보려고 껴안고 이것저것 해보거든요. 그래도 눈 안 간 지러우면 나아졌구나를 느끼죠.” (ID6, 남성, 30대, 회사원)</p>
<p>그 외 효과 측정 지표 (피검사 수치 개선)</p> <p>“(피검사) 수치가 낮게 나오고.” (ID1, 여성, 60대, 주부)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 주세요.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ID4, 여성, 30대, 회사원)</p>
<p>그 외 효과 측정 지표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p> <p>“약 먹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2~3일 지났는데 내가 약 안 먹었네” (ID2, 여성, 30대, 회사원)</p>
<p>치료 효과 만족도(6~10점, 4명) : 증상 개선으로 치료 중단, 항원 노출시에도 효과</p> <p>“(10점) 올해부터 안 갔어요. 6년 정도 맞았거든요. 5년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세요. 그만할 건지 아니면 계속 할 건지. 저는 실비가 계속되니까 계속 했었거든요. 효과는 좋은 편이라서 세 달 정도 맞았을 때부터 좋았어요. 6개월쯤 됐을 때 거의 완쾌라고 생각될 만큼 좋았고.” (ID5, 남성, 30대, 회사원) “(9점) 약 안 먹어도 웬만큼 살 수 있으니까. 심할 때만 약 조금 먹고. 완치는 확실히 아니에요. 왜 나하면 있긴 있으니까.” (ID3, 여성, 30대, 주부) “(7점) 저번에 고양이 카페를 처음 갔는데 3시간을 버텨서.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쓰다듬고 했는데 3시간 정도는 버틴 것을 봐서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3점 뺀 이유는) 거리가 멀어서 차 타고 왕복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맞으니까.” (ID7, 남성, 30대, 회사원) “(6점) 저는 20년 넘게 맞았는데. 평생 석 달에 한 번씩 맞아라. 지금도 나타날 때는 심해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요. 그래서 6점 준 거예요. 올여름 같은 경우는 웬일이야, 할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게 몸 상태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하면 그런 것 같고.” (ID1, 여성, 60대, 주부)</p>
<p>치료 효과 만족도(1~4점, 3명) : 효과 없음, 피검사 수치는 떨어졌으나 효과 불확실</p> <p>“(1점) 효과가 없었는데 그러면 1점.” (ID2, 여성, 30대, 회사원)</p>

내용

“(4점) 아직 잘 모르겠어요. 피검사 수치도 떨어졌다는데 아직도 항히스타민제 처방은 여전히 하고 있고. 그걸 먹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체감을 못하겠어요.” (ID4, 여성, 30대, 회사원)
 “(3점) 항원 수치가 고양이 95가 나와서 주사 맞기 시작한 건데. 3년 지나서 검사해 보니까 2년 전 것과 올해 것까지 비슷해요. 95에서 70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아예 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긴 가민가 해서 이것을 그만할까 고민을 하고. 저희 집 고양이한테 괜찮은데, 친구 집 갔다가 친구 집 고양이 만졌는데 고스란히 다시 올라와서. 왜 돈을 쓰고.” (ID6, 남성, 30대, 회사원)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과 약물치료와 병행(5명)으로 어떤 요인의 효과인지 모름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ID1, 여성, 60대, 주부)
 “같이 먹어요.” (ID2, 여성, 30대, 회사원)
 “이게 약 때문인지 치료 때문인지 알 수 없어서.” (ID4, 여성, 30대, 회사원)
 “불편하면 먹으라고 했어요.” (ID5, 남성, 30대, 회사원)
 “저는 매일매일 먹고.” (ID6, 남성, 30대, 회사원)
 “저는 심할 때 먹으라고.” (ID7, 남성, 30대, 회사원)

삶의 질 개선 효과 (수면 질 향상,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사라짐, 코로 숨쉬어 두통 개선)

“항히스타민제 안 먹어도 돼요. 덜 졸리고. (코로 숨쉬면) 두통이 없어져요.” (ID3, 여성, 30대, 주부)
 “자다가 코 막혀서 깨지 않아요.” (ID4, 여성, 30대, 회사원)
 “저도 약을 안 먹으니까 멎해지는 것이 약을 먹을 때는 심했는데. 졸립고. 그게 없으면 삶의 질이 훨씬 낫죠. 코로 숨 쉴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콧물이 계속 나니까 입으로 계속 숨을 쉬거든요.” (ID5, 남성, 30대, 회사원)
 “(입으로 숨쉬면) 얼굴도 붓고.” (ID7, 남성, 30대, 회사원)

2.4.3. 재치료 또는 추가치료 경험

Q. 재치료 또는 추가치료 경험이 있습니까?

환자들은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의 특성상 5년 정도 꾸준히 치료 받아야 하며, 이 과정 중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으며, 부작용이 있으면 치료제의 용량 조절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표 17. 재치료 및 추가치료 경험 >

내용
<p>치료기간 5년 예상,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과정 중 용량 조절은 있음</p> <p>“3개월에 한 번 맞는데, 증세가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5년은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ID1, 여성, 60대, 주부)</p> <p>“5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효과는 사실은 쪽 올라가는 거니까 당장 이번 달에 안 좋았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단지, 그전에 맞았을 때 부작용이 심했다. 그러면 용량을 낮춰 주시고 그런 정도.” (ID4, 여성, 30대, 회사원)</p>

2.4.4. 치료법 추천 의향

Q.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를 위해 받은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을 주변 지인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알레르기비염·천식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에 대한 주변인 추천도는 10점 만점에 6~10점으로 수준으로 중간이 5.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효과를 느낀 경우 알레르기비염의 원인을 치료해주며 약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천 의향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본인이 치료 효과를 느끼지 못한 환자들도 알레르기 치료의 유일한 방법이며, 치료가 된 환자도 있기 때문에 시도는 해볼 만하다고 추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 직장인은 치료 직후에는 효과가 있다가 다음 치료 전까지 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져 치료 가능한 병원이 너무 멀 경우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 표 18. 치료법의 추천 의향 >

내용
<p>추천 정도 6~10점으로 평가 : 본인이 효과를 느낀 경우 추천 의향 높은 편</p> <p>“(9점) 주사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9점. 시간이 되고 주사가 안 무서우면 무조건 해야 되는 치료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ID3, 여성, 30대, 주부)</p> <p>“(9점) 저는 효과를 많이 봐서, 한 번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원인을 치료 해 준다.”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8점) 옛날에는 무서웠고 몰라서 부작용이 있을까 무서웠는데, 이제는 확실히 아니까 해봤고. 그래도 효과가 조금 있으니까. 약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ID1, 여성, 60대, 주부)</p> <p>“(8점) 하겠다고 하면 할 것 같은데, 집이나 회사가 병원하고 가까우면 하고 멀면 하지 말라고 해요. 멀면 시간도 많이 걸려서. 만약 왕복 2시간 걸리면 안 할 것 같아요. 좋아지긴 했는데 진짜 완치가 됐다. 맞는 동안은 완전히 프리하다면 괜찮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좋아지고. 맞</p>

내용

으면 1~2주는 박세게 좋고, 점점 느슨하게 맞을 때 되면 살짝 다시 나거든요.” (ID7, 남성, 30대, 회사원)

“(7점) 알레르기 반응에 있어서 치료 방법이 거의 없는데,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너가 힘들면 가서 해봐라 얘기할 것 같아요.” (ID4, 여성, 30대, 회사원)

“(6점) 저는 효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6점” (ID2, 여성, 30대, 회사원)

“(6점) 저 자체도 치료가 좋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지인한테 추천을 해줘서 지인도 만족을 할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천은 하겠지만 딱히.” (ID6, 남성, 30대, 회사원)

2.5. 기타

2.5.1. 기타 의견

Q. 알레르기비염·천식 혹은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알레르기비염·천식 환자들은 거주지 근처에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이 가능한 병원이 없고, 동네 내과에 물어봐도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가 주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환자도 있었다. 다른 환자는 약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설명을 더했다.

환자들은 주사제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며, 수입이 어려운 주사제가 있다고 알고 있었다. 병원 방문 후 주사제가 떨어져 치료를 못하고 다시 방문한 환자도 있었다.

치료 기간으로 3년을 예상했던 환자는 치료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서 치료기간의 단축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증상의 개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증상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는 피검사 수치, 삶의 질 개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 등이 논의되었다. 지표가 있었다면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치료 중 효과 체크를 위해 피검사를 한 경험이 없는 환자도 있었다. 삶의 질 개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 등을 효과로 체크하는 병원은 없었다.

< 표 19. 알레르기비염·천식 및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에 대한 기타 의견 >

내용
<p>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 병원 접근성 개선 필요</p> <p>“동네 병원에서도, 집 가까운 데서 쉽게 맞을 수 있게.” (ID1, 여성, 60대, 주부) “제가 건강검진 해주는 동네 내과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런 치료 자체의 존재를 모르시더라고요.” (ID7, 남성, 30대, 회사원)</p>
<p>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기 위한 인슐린처럼 자가 주사 필요</p> <p>“저는 자가로 놓을 수 없나 생각했거든요. 인슐린처럼. 새로 시작하면 일주일마다 가야 되니까.” (ID3, 여성, 30대, 주부) “약 보관 문제도 있고, 맞고 부작용이 확실히 있으니까 병원에서 일부러 맞는 것 같아요.” (ID4, 여성, 30대, 회사원)</p>
<p>주사제 공급 부족</p> <p>“영국 업체에서만. 영국, 미국, 독일. (공급)” (ID2, 여성, 30대, 회사원) “집 먼지와 진드기는 수급이 쉽다고 했어요. 그 외에 꽃가루나 플라타스 이런 것들은 영국에서 수급이 힘들다고 했어요.” (ID3, 여성, 30대, 주부) “세 달 만에 갔었는데 오래 되면 증발이 돼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 안에서. 한 번 맞을 만큼도 안 남아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ID5, 남성, 30대, 회사원)</p>
<p>치료 기간 단축</p> <p>“3년 5년씩 안 하고, 1년이라도 단축이 되면.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3년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5년은 봐야 된다.” (ID1, 여성, 60대, 주부)</p>
<p>증상의 객관적 지표화</p> <p>“약을 3년 5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는데 비해서 증상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한 지표가 부족한 것 같아요. 피 검사 외에는 저희가 콧물이 덜 나는 것 같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지표들이 더 추가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ID4, 여성, 30대, 회사원) “저도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게 있었으면” (ID2, 여성, 30대, 회사원) “(삶의 질 개선 체크) 없었어요. (피검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치료 중단을 혼자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ID3, 여성, 30대, 주부)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 보러 가서 코 훌쩍이고. 어디서든 휴지 들고 다니고.” (ID4, 여성, 30대, 회사원)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 중요한 것 같아요.” (ID1, 여성, 60대, 주부)</p>

III

결과 요약 및 결론

1. 평가결과 요약

1.1 질환 경험 및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도

환자들의 알레르기비염·천식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거나 성인이 된 후 발현했다. 성인이 된 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출산 후이거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시작된 경우였다. 환자들은 약국 콧물약이 효과가 없을 때, 폐렴 등 다른 질환으로 병원 방문 후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내과나 알레르기 내과를 찾았다. 피검사 또는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고양이 털,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파악했다. 환자들의 증상은 첫째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으로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천식이 있었고, 둘째 눈 관련 질환으로 눈 부위의 가려움 및 부음, 결막염이 있었다. 셋째, 입천장 가려움의 증상을 경험한 환자도 있었다. 봄 가을 환절기, 에어컨 켤 때, 종이 넘길 때, 고양이가 근처에 있을 때, 건조할 때, 오전 시간대, 밤 시간대에 증세가 심해진 환자들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증상이 시작되어 감기인지 알레르기비염인지 몰랐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룬 경우도 있었다.

알레르기비염·천식 환자들이 겪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4가지 유형으로 사회생활의 불편함,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삶의 질 저하 및 심리적 위축, 기타 유형이 있었다. 독서실, 학교, 직장에서는 재채기가 문제 되었으며, 팬데믹 시기에는 콧물을 닦거나 마스크를 교체할 때 타인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향에 민감해져 타인의 향수 냄새나 섬유유연제 향을 맡으면 증상이 나타났다.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때문에 졸림, 변비, 입이 마르고 마른 기침을 했다. 코 대신 입으로 숨쉬어 수면의 질이 낮았다. 눈을 만지고 코를 마시는 습관도 생겼다.

환자들은 알레르기비염·천식의 개선을 위해 코수술, 항히스타민제 복용, 스테로이드 사용, 시판 약국약 사용, 코 세척, 한의원 침 맞기, 한약 먹기, 그 외 가슴기 사용, 잦은 침구 세탁, 집 및 에어컨 청소, 무향 세제 및 알레르기 이불 구입, 고양이 입양 보내기, 따뜻한 물 마시기, 눈 냉찜질, 프로폴리스 섭취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만 있었다.

환자들은 수면 장애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무기력증, 우울증, 짜증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양이와 살기 위해, 자녀 계획 중 자녀 면역력 유전 개선, 가족이나 타인의 불편함, 폐 균염 우려, 일상생활 불편함 개선을 위해 알레르기비염·천식의 치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치료 결정

환자들이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을 치료법으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3~5년이면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고, 다음으로 높은 치료율, 의사의 추천, 사용 중인 치료법의

부작용 때문이었다.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 병원이 적고, 치료비가 비싸다는 점은 치료법 선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치료법을 인지하거나 추천한 주체는 의사, 지인, 본인의 인터넷 검색이었다. 치료법 결정의 어려움 정도는 1~7점으로 부작용, 주기적 치료의 번거로움, 주사 거부감 때문에 고민한 환자(5~7점, 2명)도 있었지만, 7명 중 5명(1~4점)은 부작용보다는 증상의 치료가 더 중요했다고 응답했다.

치료법에 대한 정보는 의사가 모두 설명했지만 한 병원은 의사는 짧고 간단한 설명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코디네이터가 한 사례가 있었다. 의사로부터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4~9점으로 평가했으며, 6명은 7~9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충분한 정보 제공은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치료법을 결정할 때는 원인, 비용, 치료 빈도, 치료 기간, 치료 효과와 성공률, 부작용, 주사 통증 정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1.3 치료과정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시 가장 큰 불편함은 치료 기간이 길다는 점과 빠짐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초기치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났다. 그 외 치료 과정 중 느끼는 불편함으로는 알레르기 항원 검사시 따끔하고, 주사 후 가려움이 있었다.

1.4 치료 후

한 환자는 현재 불편함은 없지만 약 수급 문제로 미흡한 상태로 치료가 종료되어 재발시 초기치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증상 개선이 있지만 콧물 증상이 조금씩 나빠짐을 느끼는 환자가 있었으며, 효과 없이 증상이 더 나빠져 치료를 포기한 환자도 있었다.

치료 효과 측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콧물, 재채기, 눈 주위 가려움 등의 증상 완화였으며, 그 외 피검사 수치의 개선과 먹는 약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이었다.

알레르기비염·천식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1~10점으로 환자마다 달랐다. 6~10점(4명)으로 효과에 대해 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증상의 개선과 항원 노출시 증상 개선 때문이었고, 1~4점(3명)으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효과가 없다고 느끼거나 피검사 수치가 기대보다 덜 낮아지거나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어 치료법의 효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향상 되었고,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이 사라지고, 코로 숨 쉬면서 두통이 사라져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느꼈다.

알레르기비염·천식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에 대한 추천도는 6~10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효과를 느낀 경우 알레르기의 원인을 치료해 주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추천점수가 높았다. 환자 본인은 효과가 낮다고 느끼더라도 알레르기에 대한 유일한 치료 방법이며, 치료된 환자도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만한 치료법으로 추천하였다.

1.5 기타

환자들은 알레르겐 면역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적고, 병원 방문의 불편함 개선을 위해 자가 주사의 필요성, 주사제 수급의 어려움, 긴 치료 기간의 단축, 증상 개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결론

알레르기비염·천식은 어릴 때부터 시작된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 된 후 출산 이후, 고양이를 키우면서 시작된 환자도 있었다. 환자들은 약국에서 파는 콧물약이 효과가 없을 때 내과나 알레르기 내과를 찾았다. 환자들은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천식 등의 호흡기 관련 증상과 눈 부위의 가려움 및 부음, 결막염 등의 눈과 관련된 증상을 겪었다. 입천장 가려움을 경험한 환자도 있었다. 환절기, 에어컨 켤 때, 종이 넘길 때, 고양이가 근처에 있을 때, 건조할 때, 오전 시간대, 밤 시간대에 증상이 심해짐을 느끼는 환자들이 있었다.

알레르기비염·천식 환자들은 사회생활의 불편함,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삶의 질 저하 및 심리적 위축, 기타 유형의 불편함을 겪었다. 조용해야 하는 장소에서의 재채기나 팬데믹 시기에 콧물을 닦거나 마스크를 교체할 때 타인의 눈충을 받았고, 향에 민감해져 타인의 향수 냄새나 섬유유연제 향을 맡으면 증상이 나타났다.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때문에 졸림, 변비, 입이 마르고 마른 기침을 했으며, 코 대신 입으로 숨을 쉬어 수면의 질이 낮았다. 눈을 만지고 코를 마시는 습관도 생겼다.

환자들은 알레르기비염·천식의 개선을 위해 의료적 치료와 집 청소 및 사용 제품을 교체했으나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만 있었다.

환자들은 수면 장애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무기력증, 우울증, 짜증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양이와 살기 위해, 자녀 계획 중 자녀 면역력 유전 개선, 가족이나 타인의 불편함, 폐 균음 우려, 일상생활 불편함 개선을 위해 알레르기비염·천식의 치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은 3~5년이면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높은 치료율, 의사의 추천, 사용 중인 치료법의 부작용 때문에 선택했다. 다만, 환자들은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 병원이 적고, 치료비가 비싸다고 느꼈다.

치료법 결정의 어려움 정도는 1~7점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주기적 치료의 번거로움, 주사 거부감 때문에 고민한 환자도 있었지만, 다수는 부작용보다는 증상의 치료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다수가 7~9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충분한 정보 제공은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치료법을 결정할 때는 원인, 비용, 치료 빈도, 치료 기간, 치료 효과와 성공률, 부작용, 주사 통증 정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 과정 중 가장 큰 불편함은 치료 기간이 길다는 점과 빠짐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주사 후 가려움도 있었다. 약 수급 문제로 치료가 중단되어 재발시 초기치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환자가 있었으며, 콧물 증세가 조금씩 나빠짐을 느끼는 환자가 있었다. 효과 없이 증상이 더 나빠져 치료를 포기한 환자도 있었다.

치료 효과 측정 지표는 콧물, 재채기, 눈 주위 가려움 등의 증상 완화, 피검사 수치의 개선, 먹는 약의 필요성을 더이상 느끼지 않는 것이었다.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1~10점으로 환자마다 달랐다. 증상의 개선과 항원

노출시 증상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환자가 있는 반면 효과가 없다고 느끼거나 피검사 수치가 기대보다 덜 낮아지거나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어 어떤 요인의 효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었다. 치료 효과로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향상 되었고,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이 사라지고, 코로 숨 쉬면서 두통이 사라져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느꼈다.

알레르기비염·천식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에 대한 추천 이유는 알레르기의 원인을 치료해 주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였다. 환자 본인에게는 효과가 낮다고 느끼더라도 알레르기에 대한 유일한 치료 방법이며, 치료된 환자도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만한 치료법으로 추천하였다.

환자들은 알레르겐 면역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적고, 병원 방문의 불편함 개선을 위해 자가 주사의 필요성, 주사제 수급의 어려움, 긴 치료 기간의 단축, 증상 개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표 20. 평가결과 총괄 요약 >

1. 질환 경험 및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도	
1.1. 치료 시작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때부터 발병한 경우와 성인이 된 후 발병한 경우로 나뉨 (출산후,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 치료 기간 1년 6개월~13년 • 병원 방문 계기 : 콧물약이 듣지 않을 때, 폐렴으로 병원 방문 후 원인 치료 위해 알레르기 내과 소개 받음
1.2. 생활의 불편한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실, 학교, 직장에서 심한 재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듯함 • 코로나19 기간 동안 콧물로 마스크를 교체하거나 콧물을 닦으면 사람들 눈치 • 향에 예민해져 사람들 만났을 때 증상 발현 • 삶의 질 저하, 심리적 위축 •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 졸려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움, 변비, 입이 마르고 마른 기침 • 새로운 습관 : 눈곱 때문에 눈을 만지게 됨, 코를 마시는 습관
1.3.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법 이전 다른 치료법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적 치료 : 코수술, 항히스타민제 복용, 스테로이드 사용, 시판 약국약 사용, 코 세척, 한의원 침 맞기, 한약 먹기 • 일상생활 속 노력 : 가습기 사용, 침구 세척, 에어컨 청소, 집 청소 등 세탁 및 청소의 빈도 증가, 무향 세제나 알레르기 이불 구입, 고양이 입양 보내기, 따뜻한 물 마시기, 눈 냉찜질, 건강식품 섭취
1.4.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 결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 장애로 삶의 질 저하 (집중력 저하, 피로도 증가) • 심리적 변화 (무기력증, 우울증, 짜증) → 일상생활에도 영향 • 고양이와 살기 위해서 치료 결심 • 자녀 계획 중 자녀 면역력 유전 개선 • 가족이 불편함을 느낌 (찾은 빨래, 환기, 수면 중 후비루로 배우자가 불편) • 타인의 시선 (공공장소 이용, 친구들의 농담) • 폐가 굳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 의사 권유
2. 치료 결정	
2.1.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 치료법 결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년만 치료하면 되는 궁극적 치료방법 • 약물 부작용으로 약을 끊기 위해 선택 • 높은 치료 가능성 • 의사 추천 • 다른 대안 없음
2.1.1. 치료법 추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추천 • 지인 추천 • 인터넷 검색
2.2. 치료법 결정의 어려움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점) 부작용 우려, 주기적 치료의 번거로움과 주사 거부감 • (1~4점) 부작용 있더라도 증상 치료가 더 급했음
2.3. 치료법 정보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의사 + 코디네이터
2.4. 치료법 정보의 충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점) 충분한 시간, 원치움, 부작용, 치료제 사용 이유 및 치료제 수급상황 → 환자 불안감 해소가 중요 • (4점) 친절하지 않고, 코디네이터가 설명

2.4.1. 치료법 결정 시 필요한 정보

- 원인, 비용, 치료 빈도, 치료 기간, 치료 효과와 성공률, 부작용
- 적정 설명 시간 : 10분
- 사전 제공 필요 정보 : 주사 통증, 주사 부작용

3. 치료과정

3.1. 치료 과정 중 불편함

- 알레르기 항원 검사시 따끔함
- 시술 후 : 주사 후 가렵고, 긁어서 붓고, 살이 까짐
- 긴 치료 기간 등과 꾸준히 가야 하는 점, 치료 시간 놓치면 치료 기간 늘어남

4. 치료 후

4.1. 치료 후 불편함

- 미흡하게 치료 종료시 초기치료부터 다시 받아야 함(약 수급 문제로 치료 중단)
- 콧물 증상 조금씩 나빠짐
- 3년 치료 후 효과 없어 포기

4.2 치료효과 만족 정도

- 증상 완화 : 콧물, 재채기, 눈 주위 가려움
- 피검사 수치 개선
-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 삶의 질 개선 효과 (수면 질 향상,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사라짐, 코로 숨쉬어 두통 개선)
- (6~10점) : 증상 개선으로 치료 중단, 항원 노출시에도 효과
- (1~4점) : 효과 없음, 피검사 수치는 떨어졌으나 효과 불확실

4.2.1. 재치료 또는 추가치료 경험

- 특성상 5년 정도 꾸준히 치료 받아야 한다고 인식

4.3. 치료법 추천 의향

- (6~10점) 효과 느낌, 알레르기비염 원인 치료, 약 먹는 것보다 나음, 부작용 없음, 유일한 치료법, 시도 가치 있음

5. 기타

5.1. 알레르기비염·천식 및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에 대한 기타 의견

- 치료 병원 접근성 개선 필요
-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기 위한 인슐린처럼 자가 주사 필요
- 주사제 공급 부족
- 치료 기간 단축
- 증상의 객관적 지표화